Project 3에서 Project 4로 넘어가면서 재사용한 부분

Project 3은 안드로이드 개발이었고, Project 4는 웹 개발이었다. 안드로이드 개발은 javascript가 기반으로 된 프로젝트였고, 웹 개발은 python의 flask로 진행했지만 대부분이 html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였다. 두 프로젝트가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고, 따라서 웹개발을 할 때 Project 3의 코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웹에서 좌측의 네비게이션 바와 안드로이드의 하단 네비게이션 바, 창 안에 자체적으로 구성된 search bar는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Web-based Software 개발에 대한 소회

Project 3이 굉장히 힘들었던 터라 웹개발은 그에 비해 수월했다. html이 xml처럼 디자인만을 위한 문서인줄 알았는데, html은 그와 다르게 여러 기능들도 넣을 수 있고, 문법만 잘 지키면 css나 javascript등 다른 언어들을 이용한 기능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냥 이곳 저곳 유명 사이트에 들어가서 html이 어떤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 태그를 어떠한 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젠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좋은 선례들을 찾을 수 있었어서 오히려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했던 것 보다 편했다. 하지만 database연결을 html 자체에서 하지않고 flask의 sqlalchemy를 import해서 사용했더니 그것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했던 db보단 sqlalchemy가 훨씬 나았다. 또한 사이트에서 elements에 나타나는 html이 코드로 작성한 html이 작동될 때 그에 맞게 조금씩 바뀐 html이란 점 때문에 좋은 선례들이 있지만 또 어떻게 코드를 짜야할 지는 따로 구상해야했다.

또한, 각 페이지에 있는 소스코드들이 어떻게 짜여진 건지 웹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폭이 넓어졌다.